

# 도 건설교통, 기반시설 확충 역점

### 새해 업무목표 '서해안시대 미래 선도, 균형있는 전북발전' ... 10대 중점 시책 추진

전북도 건설교통국은 새해 업무목표를 '서해안시대 미래 선도, 균형있는 전북발전'으로 설정하고 전북발전의 기틀이 될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중점 추진시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SOC분야 신규사업을 최대 규모로 발굴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600억원 증액된 1조 5,600억원 확보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새만금 광역 연계도로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정핵심과제인 탄소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를 재추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과 지역특화를 통한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도정발전의 견인하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는 1,778억원을 투자해 22개지구 166.5km를 확충하고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는 17개 지구에 709억원을 투자해 72.6km를 건설할 예정이다.

도민 편의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남원시, 완주, 임실군에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 사업과 농림부 신규사업인 택시DRT 사업도 전주, 임실군에 도입해 수요자 중심교통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위치포시 등 승강장 시설개선 35개소를 추진해 교통약자 이동수단도 확충한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53억을 투자



전북여성 신년하례회 12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전북여성 신년하례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오경진 여사, 김광수 의원, 황현 도의회의장, 신수미 센터장을 비롯한 여성대표들이 하례역 커팅을 하고 있다.

해 야적장 포장 및 하역장비 이동로를 개설하고 물류인프라 시설 확대를 위해 3개소(군산, 익산왕궁, 익산정족)의 신규물류 단지 조성과 화물차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 등 3곳에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한다.

환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13지구에 808억을 투입하고, 지방하천도 42개 하천에 1,137억원 들여 42.4km를 정비한다.

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선6기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을 지난해 7,100여호의 공급에 이어 기간내 5,600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등 소외지역 및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농어촌 소규모 임대 355호(정수·임실·진안·무주), 공공실버 80호(부안), 마을정비형230호(고창, 완주) 추진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급여 4만5,000가구,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250호), 노후주택 개보수(1,500호)사업 등을 추진한다.

효율적 토지관리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해 지적분야에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지구, 9,000필지의 지적 불합합지를 해소하고, 도로, 상

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DB구축을 202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으로 이전이 완료되는 혁신도시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강화와 문화복지 시설 건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2020 전북 대도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단기, 중장기 지역개발 액션플랜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던 건설교통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3곳 '열린 어린이집' 선정

### 전주 서신·예대키즈·익산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전주 서신어린이집 등 도내 3곳의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서신어린이집과 예대키즈어린이집, 익산 아이들세상어린이집 등 3곳이 보건복지부 지정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됐다.

또한 서신어린이집은 우수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돼 현관 전달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주 서신어린이집은 다양한 부모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부모의견을 청취하는 등 열린어린이집 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운영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참여성과 개방성, 지속가능성 등의 세부지표를 심사해 선정·발표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농식품 창업자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12일부터 13일까지, 부안 농생명혁신수련원에서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28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초기 창업자의 산업 생태계 진입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지도, 마케팅 컨설팅, 공정관리, 지식재산권 운영, 수출 및 투자유치 등 전문가 멘토링을 추진하고, '초기창

업자 시장진출전략'과 '농식품 메가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플라보노이드 멘토링시간에 눈길을 끌었다.

각 분야 전문가 앞에서 자신의 사업화 현황 및 애로사항 설명을 하고 이 대한 해결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문제 해결 방식으로 멘토링을 받았으며, 1:1 멘토링을 통한 심층 분석도 같이 진행했다. /인재용 기자

## 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우수사례집 발간

6차산업화 분야의 대표 사례인 '진안마을(썬)'은 로컬푸드 레스토랑, 로컬푸드 플랫폼, 잡곡가공장 등의 신규 사업장을 설치함으로써 매출 5억 8,000만원과 방문객 수 6,350명(2015년 기준)을 기록했다.

제조·가공 분야 농식품가공수제품 상품화지원사업으로 쌀과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명신포드'는 부드러운 식감의 쌀과자 '첫눈에 반한 눈송이'로 2016년 전북도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내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로 추진되는 62개 사업의 300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마을공동체 및 도농 교류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 10선을 선정했다.

'농촌 현장 속에서 찾은 성과'라는 주제로 준비한 우수사례집은 선도농가 대표자 인터뷰 및 현장 밀착 취재 등을 통해 각 사례별 지원 성과와 추진과정을 알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우수사례집은 지역사회의 성과확산 및 업무 공유를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전국 최초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35억 조성

### 2020년까지 마련... 혁신도시 성과를 지역 균형발전 동력으로 활용

전북혁신도시에서 파생되는 각종 성과를 도내 전 시군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서 조성된 성과를 도내 다른 시군과 공유하기 위해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도는 혁신도시 성과를 도내 전 시군까지 파급시켜 전북 균형발전 동력으로 활용코자 '혁신도시 성과공유 조

례'를 지난해 5월에 제정했다. 특히 올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0년까지 35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설치는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수도권 과밀화와 다른 지방과의 불균형 해소에 있는 만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과 관계에서 보면 지역내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혁신도시 효과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는 취지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방세수 증대와 이전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지난 12월말 기준 2만5,161명으로, 이전대상 12개 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임직원 약 4,149

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오고, 8월에 한국식품연구원 이전해오면 임직원 1,000여명이 추가로 입주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최근 3년간 정수 한 도세는 770억원, 시군세는 99억원이다. 기금은 혁신도시에서 받는 지방세와 차차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 기금으로 각 시군의 현안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설 명절 특별 공직감찰 대대적 실시

전북도가 설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16일부터 설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15일간을 설명절 집중감찰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5개반 23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이 감찰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감찰활동은 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부청,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출연기관 등 도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직원들의 복지에 대해 노출 또는 안행감찰을 병행 실시하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민원처리 지연 등 공직기강 해이와 주민 및 귀성객 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AI 방역활동, 동절기 안전대책, 설명절 특별대책 등이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사람을 찾습니다**

▲박진현(550430-1\*\*\*\*\*) - 남  
▲박종천(640102-1\*\*\*\*\*) - 남  
▲박형진(671025-1\*\*\*\*\*) - 남

송정규(300310-2\*\*\*\*\*)씨가 그의 세 아들인 박진현, 박종천, 박형진씨를 애타게 찾습니다.

\*\*주소: 전북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32번지  
\*\*연락처: 010-3903-8619(송정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